

2020년 2월 1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코로나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 부각 애플(-1.83%) 실적 경고, 2월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26.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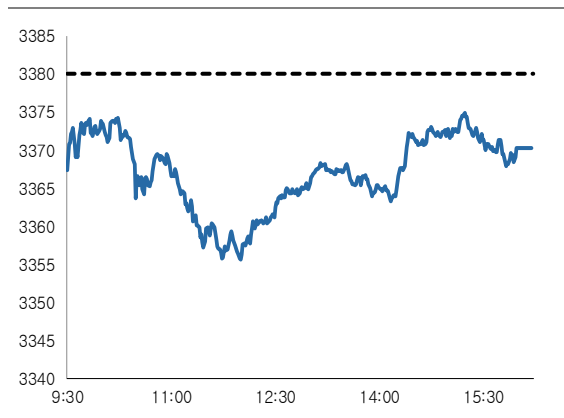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기업실적 경고, 경기 둔화 우려

미 증시는 애플이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의 공급망 중단 및 수요 둔화 여파로 실적 경고하자 하락 출발. 이 결과가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한 점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더불어 화웨이 관련 이슈 부각 여파로 미-중 무역분쟁 이슈 재 부각 또한 부정적. 그러나 관련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을 감안 영향력이 제한된 가운데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하며 혼조 마감(다우 -0.56%, 나스닥 +0.02%, S&P500 -0.29%, 러셀 2000 -0.24%)

미 증시는 애플의 경고 및 경기 둔화 우려로 혼조 마감. 애플(-1.83%)은 중국 이외 지역과 서비스 부문의 강세를 전망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의 공급망 중단 및 매장 폐쇄로 이번 분기 수익 부진을 경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개별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며 매물 출회. 특히 애플이 작업이 재개되기 시작 했지만, 예상보다 정상화 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발표로 저가형 스마트폰 양산 또한 지연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다만, 예견된 내용이었으며, 중국향 매출이 크지 않은 일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지수 하락은 제한

한편, 2월 독일의 ZEW 경기기대지수가 전월(26.7)이나 예상(21.0)을 크게 하회한 8.7로 발표. 현재 경기평가지수 또한 전월(-9.5)이나 예상(-10.5)을 크게 하회한 -15.7로 발표. 그동안 독일의 ZEW 경기기대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 기대와 타결로 지난 10월 -22.8을 기록한 이후 11월 -2.1, 12월 10.7, 1월 26.7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공포감이 경제 심리지표의 부진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 이는 이번주 발표되는 2월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 PMI, 20일까지의 한국 수출입 부진을 예상케 한다는 점에서 부담. 결국 경기 측면에서 미-중 1차 무역 합의로 개선되던 심리지표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재차 위축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주식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추정. 물론 이미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금융, 반도체, 에너지 등이 부진했으나 유틸리티, 대형 기술주, 경기소비재가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 장세 지속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08.88	-1.48	홍콩항셱	27,530.20	-1.54
KOSDAQ	682.92	-1.40	영국	7,382.01	-0.69
DOW	29,232.19	-0.56	독일	13,681.19	-0.75
NASDAQ	9,732.74	+0.02	프랑스	6,056.82	-0.48
S&P 500	3,370.29	-0.29	스페인	10,005.80	-0.16
상하이종합	2,984.97	+0.05	그리스	911.82	-0.86
일본	23,193.80	-1.40	이탈리아	25,223.51	+0.4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제외 대형 기술주 강세

애플(-1.83%)은 이번 분기 실적 부진을 경고하자 하락했다. 더 나아가 저가형 스마트폰 양산 일정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정적이었다. 브로드컴(-2.21%), 쿼보(-2.63%), 스카이웍(-1.87%) 등 부품주도 하락했다. AMAT(-2.22%), 램리서치(-4.11%)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은 미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여파로 하락했다. JP모건(-1.32%), 웰스파고(-2.55%), BOA(-1.66%)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특히 웰스파고는 버크셔가 지분 축소를 발표하자 낙폭이 컸다. 메이시스(-3.60%)는 S&P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한 여파로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7.30%)는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월마트(+1.48%)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말 쇼핑기간이 짧았던 점, 배당금 증가를 발표한 점에 기인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트코(+1.17%), 타겟(+1.60%) 등도 동반 상승했다. 아마존(+0.97%), 페이스북(+1.69%), MS(+1.01%), 알파벳(+0.05%)과 애플은 골드만삭스가 4분기 EPS 증가율이 16%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 결과를 내놓자 강세를 보였다. 특히 FAAMG를 제외한 S&P500 이익은 0%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익개선이 5개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6%	대형 가치주 ETF(IVE)	-0.37%
에너지섹터 ETF(OIH)	-1.96%	중형 가치주 ETF(IWS)	-0.25%
소매업체 ETF(XRT)	+0.42%	소형 가치주 ETF(IWN)	-0.45%
금융섹터 ETF(XLF)	-0.96%	대형 성장주 ETF(VUG)	+0.05%
기술섹터 ETF(XLK)	-0.37%	중형 성장주 ETF(IWP)	+0.0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4%	소형 성장주 ETF(IWO)	-0.04%
인터넷업체 ETF(FDN)	+0.64%	배당주 ETF(DVY)	-0.33%
리츠업체 ETF(XLRE)	-0.1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7%
주택건설업체 ETF(XHB)	-0.6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7%
바이오섹터 ETF(IBB)	+0.04%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36%	하이일드 ETF(JNK)	-0.19%
곡물 ETF(DBA)	+0.63%	물가연동채 ETF(TIP)	+0.22%
반도체 ETF(SMH)	-1.50%	Long/short ETF(BTAL)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06.42	-0.83%	+0.29%	-9.44%
소재	379.17	-0.23%	+0.49%	-1.25%
산업재	708.80	-0.56%	-0.05%	-0.43%
경기소비재	1,043.39	+0.08%	+1.42%	+3.75%
필수소비재	662.61	-0.41%	+0.02%	+0.92%
헬스케어	1,205.08	-0.37%	-0.03%	-1.04%
금융	511.60	-0.89%	-0.38%	-0.71%
IT	1,782.23	-0.35%	+0.56%	+4.48%
커뮤니케이션	192.26	+0.40%	+0.95%	+0.61%
유틸리티	359.13	+0.79%	+2.88%	+5.90%
부동산	259.31	-0.15%	+3.38%	+5.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반등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6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682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0.75pt 상승한 298.5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1.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의 화웨이 대상 규제 강화로 2 차 미-중 무역협상 불안 심리가 부각된 가운데 애플이 코로나 19 로 인한 실적 경고를 발표하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하락을 보였다.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부정적인 요인은 주식시장에 부담을 줘 반발 매수세 또한 실종 된 점이 낙폭을 확대하게 만든 요인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도 애플의 실적 경고로 기업들의 1 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했다. 더불어 1 차 미-중 무역합의 이후 개선되던 심리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또한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물론 전일 한국 증시에는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전일과 같이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된다. 그러나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반등 또한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 논의 일정(2/28)을 연기하고,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반대를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다. 더불어 테슬라(+7.30%)가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급등한 점, 삼성전자가 퀄컴으로부터 5G 모뎀칩 생산 계약 수주 소식 등은 관련 종목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반등이 예상된 가운데 개별 종목 및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심리지표 부진

2 월 독일 ZEW 경기 기대지수는 전월(26.7)이나 예상(21.0)을 크게 하회한 8.7 로 발표되었다. 경기 평가지수 또한 예상(-10.5)를 하회한 -15.7 로 발표되는 등 심리지표가 부진했다.

2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4.8)이나 예상(4.5)를 크게 상회한 12.9 로 발표되었다. 특히 신규수주 (6.6→22.1), 재고지수(-0.7→12.9)이 크게 상회했다. 반면 고용지수(9.0→6.6)은 둔화되었다.

2 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과 예상(75)을 하회한 74 로 발표되었다. 모기지 금리 하락에 따른 여건 개선이 지속되었으나,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수요 부진 이슈가 부각되고, 여기에 러시아가 OPEC 정례회동 3월 개최를 언급한 점은 하락 요인이었다. 그러나 리비아 내전이 지속되자 공급 감소 기대가 유입되며 전반적으로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달러화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여타 환율에 대해 상승했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19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30년물 국채금리가 2%를 하회하는 등 낙폭을 확대했다. 또한 애플의 경고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낙폭을 축소하고 경기 둔화가 이미 예견된 내용이었던 점을 감안 시간이 지나며 국채금리는 하락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은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은 휴장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05	0.00	+5.00	Dollar Index	99.449	+0.45	+0.74
브렌트유	57.75	+0.14	+6.92	EUR/USD	1.0793	-0.40	-1.13
금	1,603.60	+1.08	+1.53	USD/JPY	109.87	-0.01	+0.07
은	18.150	+2.35	+2.05	GBP/USD	1.3001	-0.05	+0.38
알루미늄	1,720.00	-0.06	-0.81	USD/CHF	0.9831	+0.23	+0.74
전기동	5,773.00	-0.67	+0.49	AUD/USD	0.6687	-0.40	-0.40
아연	2,145.00	-1.24	-0.14	USD/CAD	1.3259	+0.18	-0.20
옥수수	387.50	+1.44	+0.26	USD/BRL	4.3622	+0.79	+0.73
밀	565.00	+4.34	+2.45	USD/CNH	7.0079	+0.33	+0.53
대두	902.25	-0.11	+0.56	USD/KRW	1189.50	+0.47	+0.67
커피	108.85	-2.25	+6.61	USD/KRW NDF1M	1191.00	+0.52	+0.7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59	-2.55	-4.13	스페인	0.285	0.00	+2.00
한국	1.555	-6.00	-4.20	포르투갈	0.282	-0.40	-2.40
일본	-0.060	-2.70	-0.50	그리스	0.965	+3.30	-3.70
독일	-0.407	-0.60	-1.60	이탈리아	0.929	+2.60	-3.80